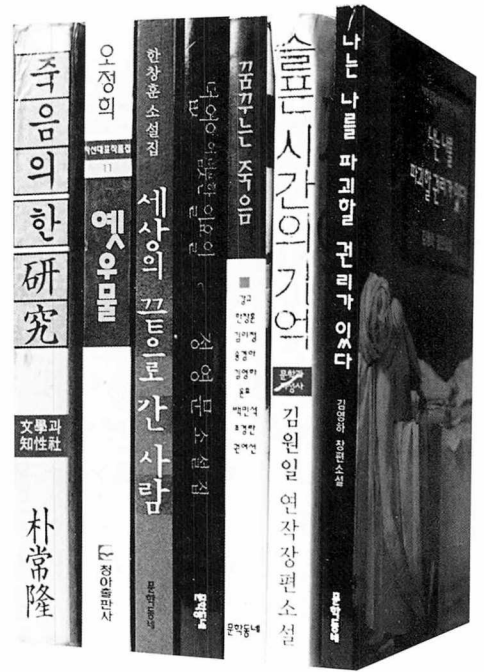


삶의 배후에 떠도는 죽음의 어둠 기록하는 작가들

우리 문학 속의 죽음

우리 문학 속에 표현된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은 세계의 불모성,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권태로운 삶의 반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죽음은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반역의 징후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학에서 죽음은 삶을 아주 낮설게 바라보게 한다.



죽음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죽음을 경험할 도리는 없지만, 우리는 죽음이 삶의 어둠 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기아, 전쟁,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가 하면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삶과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현대문학 속에 나타난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이용된다. 우리가 속해 있고 숨쉬고 있는 삶이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다는 것을 작가나 시인은 죽음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 죽음을 통해 보는 삶은 우리가 매양 봐오던 삶으로 비쳐지지 않고 무척 낯설게 표현된다. 그러나 그 낯섬으로써 삶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 속살을 보여주기도 한다.

새로운 생명을 배태하기 위한 죽음

박상룡만큼 죽음에 천착한 작가도 우리 문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의 장편 《죽음의 한 연구》(문학과지성사)에 나타나는 죽음은 구도적 죽음이다. 주인공이 안개비가 자주 내리는 유리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유리 입구에서 주인공은 존자와 외눈 중을 죽이고 장옷을 입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해한다. 이 살인은 유리라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보인다. 극복해야 할 대상을 뛰어넘으려는 일종의 구도적 살인인 것이다. 유리에서 주인공은 마른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하는데, 유리가 상징하는 것이 세계의 불모성이라면 그가 낚으려고 하는 물고기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박상

룡의 죽음은 생명을 위한 구도이자 제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의 불모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오정희의 단편 〈옛우물〉은 박상룡의 작품과 닮아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르다. 박상룡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죽음이 다분히 형이상학적이려면, 오정희 소설에 표현된 죽음은 아주 실제적이다. 〈옛우물〉은 마흔세 살 생일을 맞는 중년여성인 나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나는 서른세살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을 때를 잠시 생각하다가 막내동생을 낳던 날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것을 떠올린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옛우물은 모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옛우물은 어릴 때 친구 정옥이 빠져죽는 사건 이후 메워지고 만다. 한편 중년의 나는 간질을 앓던 외간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그의 죽음은 나의 모성이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회복될 수 없는 모성은 세계의 불모성으로 압축된다. 두 사람의 부재로 인해 소설에서 주인공의 일상은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주인공은 그 두 죽음을 통해 도리어 죽음을 껴안는다. 죽음을 껴안음으로써 주인공은 옛우물 속에 살았다는 금빛잉어의 전설을 꿈꾸게 된다. 이로써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그녀의 모성은 금빛 잉어라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한창훈 소설에 드러나는 죽음은 순화론적이다. 그의 소설집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문학동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삶의 극한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장소로 바다를 택한다. “바다가 내 앞에 있다...한 토막 삶의 끝...”(《시상에 남은 마지막 밤》) 그러나 바다는 알다시피 모성성의 최상의 형태다. 그의 주인공들은 절망스런 삶의 끝에서 바다라는 자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창훈은 주인공들의 절망을 절망 자체로 보여주지만, 삶의 끝인 죽음의 자리에서 삶이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답답하고 권태로운
삶의 반어**

아예 죽음에 골몰하는 작가도 있다. 그가 바로 정영문이다. 그의 최근 소설집 《더없이 어렵פות한 일요일》(문학동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자살을 앞둔 사람(《끝》)이거나 유언을 테이프에 녹화했다 지웠다 하는 하반신 마비의 늙은이(《무게 없는 부피》) 등 죽음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영문은 한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설을 써내려가는데, 이 중얼거림 속으로 녹아드는 죽음은 나른하고 답답하고 권태롭기 그지없는 삶의 반어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문학동네)에서도 죽음은 권태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가 다루는 죽음은 가볍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살안내원이다. 그에게 죽음은 단지 장난처럼 보인다.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인생이란”으로 끝맺는 이 소설은 너절하고 권태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파괴’하는 자살을 통해 죽음으로 투입해 들어가는 것은 삶의 권태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가볍게’ 말하고 있다.

김원일이 최근 펴낸 연작장편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문학과지성사)은 육체의 소멸을 통해 죽음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어내고 ‘한맥기도원’이라는 사설양로원에서 지내며 죽음을 맞는 네 노인들의 삶을 네편의 소설에 나눠 그리고 있다. ‘물리적 질서, 생명의 질서, 인간적 질서’인 몸이 차츰 죽음 쪽으로 옮겨가는 주인공들의 실존적 상황은 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준다.

죽음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펴낸 소설집 《꿈꾸는 죽음》(강규 외, 문학동네)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에서 고전적 죽음의 모습부터 세기말의 공포, 문화적 장치로서의 죽음 등을 펼쳐 보인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계의 시인들**

시에서 죽음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 1990년 초반부터다. 시인들이 살아내기에 이 세계는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차 있고, 시인들은 세계의 불합리성에서 오는 절망감을 자주 죽음으로 표현해놓는다.

기형도의 시 <입 속의 검은 잎>에 드러나는 죽음의 이미지는 섬뜩하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의 장례식에서 세상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는 공포에 질린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아프게 묻는다.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시대의 거대한 폭력과 자신의 실존 사이에서 갈등한다. 시인에게 세상은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치는 섬뜩한 곳이다.

최승호에게도 세계는 무덤이다. “시체냉동실은 고요하다 / 끌어

모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 (큰 도적에게 큰 슬픔 있으라) / ...죽어서야 짐 벗은 인간은 냉동실에 알몸 거지로 누워 있는데 / ...동전만한 눈알을 굴리며 고뇌하는 화투꾼들, / 그들은 죽음의 밤에도 킬킬대며 / 잔돈 굵는 재미에 취해 있다”(《세속도시의 즐거움 2》)에서 보듯 최승호의 시에서 죽음은 매우 기괴하게 변형되며 타락한 도시와 문명을 비판한다.

이연주의 시들은 악취로 가득하다. 그가 살고 있는 시공간은 벌레들이 알을 까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빛조차 썩는다(《송신탐이 흙신 젖어버렸을까》).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들추고 그녀는 매일 아침 / 자신의 시신을 내다버린다, 무서울 것이 없어져버린 세상”(《매음녀 1》)이다. 이연주의 시적 화자는 그러므로 지켜야 할 자아가 없다. 그는 끊임없이 살해충동을 느끼곤 하는데, 그의 이런 행위는 이 불모성의 시공간에 죽음의 메스를 들이대는 능동적인 행위다.

**삶의 주변을
배회하는 죽음**

남진우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학과지성사)에 그려진 세계는 익사체, 망령, 흡혈귀, 까마귀 등으로 가득하다. 그것들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내부와 세계에 널려 있는 죽음의 징후들과 맞닥뜨린다. 그가 시에 적극적으로 죽음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상의 합리적인 질서에 대한 반역이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 ...한가로이 산 자들의 삶을 결널질하며 / 자신의 죽음을 완성시켜나가리라”(《중언》) 하고 예언자적인 어투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삶의 배후에 이성에 의해 억압당한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삶의 배후에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또 다른 시집이 윤의섭의 《말괄량이 삐삐의 죽음》(문학과지성사)이다. 윤의섭은 이 시집에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죽음의 모습을 아주 건조하게 풀어내고 있다. “나뭇가지에 목매달린 사람 꽤 오래 익혀내던 열매다 / 흔들거리는 그는 그네를 타고 있는 거다 / 앞으로 가다 말고 되돌아오는 뒷걸음이 살짝 이승에 포개진다”(《나무처럼 서다》)에서 말하고 있듯이 시인에게 세계는 삶만이 일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상보적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는 곳이다.

젊은 시인들에 비하면 황동규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밝아 보인다. 14년 동안 매달려왔던 <풍장> 연작에서 시인은 삶과 순환의 고리에 기대 덩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 섬섬하지 않게 /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 손목에 달아놓고 / 아주 춤지는 않게 / ...곰소름 가서 /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 ... /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는 죽음 앞에서 총체적인 삶의 언어를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김장근 기자